

2023년 02월 05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6편 17~1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65(통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16장 1~17절(구약p.776)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3.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4.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5.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6.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7.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8.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9.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10.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11.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12.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숴뜨리시며 나를 세워 과녁을 삼으시고
13.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 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4.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 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15. 내가 굵은 베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뺨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16.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17. 그러나 내 손에는 포박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 말씀선포 / 욥의 고난과 예수님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7~8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욥의 이러한 생각과 고백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삶의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에게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먼저는 욥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음을 알고 욥과 같은 믿음으로 잘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고난이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백 속에 담긴 예수님의 고난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 욥은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을 쏟으시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본문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적개심을 자기고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면서 자신의 육체를 시들게 하시고 모든 생기를 거두어 파리한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욥의 몸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변했고, 친구들은 변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욥이 죄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죄인처럼 대하시며 당신의 진노를 그에게 쏟으셨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은 마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연상시킵니다. 히브리서는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마땅히 정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쏟아 파리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너희를 대신해 죄인처럼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믿고 구원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의 고백 속에 담긴 예수님의 고난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2. 우리 대신 질고를 지셨습니다.

- 욥은 우리가 자신을 향해 입을 벌리고 모욕하며 뽀를 친다고 하소연합니다. 본문 10절에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뽀를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들의 손에 넘기셨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먹이를 둘러싼 맹수들처럼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 속에서 욥은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뽀를 맞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 역시 예수님의 수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대제사장과 우리에게 조롱당하셨으며 로마 병사들에게 뽀를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에게 넘기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처리하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노예나 죄수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 하면 자유를 얻

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죄의 값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 하였고,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53장 3~4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 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난의 분명한 결과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어린양이 인생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였고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옴의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난의 그림자입니다. 옴은 의롭게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철저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04(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폐 회 / 주기도문